

*Felix Holt*論 : 정치/도덕의 이분법과 관련하여¹⁾

성 은 애

1. 서 론

Felix Holt, the Radical(1866)에 대한 평가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띤다. 거의 모든 평자들이 이 작품을 두고 George Eliot 작품 세계의 성숙한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작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작품의 어느 한 측면만을 높이 평가하거나 작품의 어느 한 부분에 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작품이 소위 '정치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으로 분리된 인상을 준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각 부분의 문학적 성과가 일정한 수준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부분중 하나만을 논의하는 방법일 테지만, 그것이 나머지 다른 한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논의 자체가 작품 전체에 대한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 작품을 '정치소설'로 간주하고 당대의 선거법 개정 운동이나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George Eliot의 정치의식을 연관시키는 비평에서 두드러진다. 이 작품이 '급진주의자'라는 제목에서부터 정치적 함축을 담고 있는데다가,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35년전'—즉 1831년—이라는 시기를 명시하고 제 1장도 '기억에 남을 1832년 그 해 9월 1일'로 시작함으로써 선거법이 개정된 이 시기가 영국사회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임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기동 줄거리가 선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점 등은 이 소설이 무엇보다도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Felix Holt*를 보는 경우 대개는 당대의 선거법 개정과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참여 요구를 작가가 어떻게 그려내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작가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이 작중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견해가 평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경우, 이러저러한 예들로 보아 George Eliot가 보수적이라든가, 노동계급의 정치 진출을 두려워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는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물론 작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평가 자체로는 타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연구들이 무엇보다도 작품이 나온 당대의 현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Felix Holt*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Felix Holt*는 당대 지식인의 입장에서 선거법개정을 바라보고 노동계급의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한 작품에 불과하며, 더우기 작가의 견해 자체가 우리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일 경우 이 작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된다는

1) 이 논문은 1990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진행된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 19세기 영문학 연구회 세미나의 토론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논리도 가능하다.

한편 소위 ‘도덕적’인 부분, 즉 Transome일가를 둘러싼 이야기를 논의의 줄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F.C. Thomson의 설명에 힘입어 두가지 줄거리가 질적으로 다른 근원과 의도를 지녔다고 전제하는 시각²⁾과 두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상적 기반을 가졌다고 간주하는 시각³⁾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두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히 Mrs. Transome부분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이야기로 읽게 되는 폐단이 있고, 후자는 Mrs. Transome의 이야기가 갖는 진행성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으나 두 부분의 문학적 성취도의 차이를 해명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진다.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하고 이 작품을 통일된 하나의 전체로 읽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Esther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⁴⁾ Esther가 작품의 중심이 되면 자연히 Felix와 Harold 사이의 차이가 강조되면서 그녀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가운데 두 부분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 이 작품이 Esther라는 ‘주인공’의 갈등과 선택에 의해 깔끔하게 통합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Treby Magna의 변화나 Mrs. Transome의 이야기,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군소 인물들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 것처럼 간주되고 따라서 오히려 문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있다.

이 작품이 지닌 가치를 한마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 작품이 좁은 의미의 ‘정치’만을 다룬 것도, ‘도덕’만을 다룬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치 對 도덕’이라는 이 분법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막연해진다든가 어려움도 있으나 가령 ‘리얼리즘’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이 작품을 본다면,⁵⁾ 소위 ‘도덕적’인 부분도 오히려 당대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개개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감정에 기초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따라서 각 부분은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객관적이면서 창조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각 부분의 문학적 성취도가 다르고 그것이 작품을 분열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 각 부분을 병렬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왜 그러한 분열이 생겨나며 그 분열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새로이 대두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Treby Magna의 변화를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보는 비평들을 검토하면서 ‘정치소설’이라는 범주의 유용성을 따져보고, 여성론의 입장 가운데서도 여성문제와 계급관계를 다같이 문제삼는 논의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R. Leavis의 *Felix Holt*論을 검토하겠는데, 주로 이러한 비평들이 이 작품의 분열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정치소설’과 *Felix Holt*

*Felix Holt*를 흔히 ‘정치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이 작품이 선거와 폭동이라는

2) F.C. Thomson, "The Genesis of *Felix Holt*," *PMLA*, vol. 74 (1959), 576-584.

3) 노동계급과 여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대부분의 여성론적 비평이 이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Bonnie Zimmerman, "*Felix Holt* and the True Power of Womanhood," *ELH*, 46 (1979) 432-457.

4) 김승순, 「George Eliot의 *Felix Holt*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8).

5) 전승희, 『George Eliot의 *Felix Holt*와 *Daniel Deronda*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1850년대에 이르러 일반화된 소위 ‘정치-사회 소설’⁶⁾들, 또 그 작품들을 낳은 문학적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⁷⁾ 이러한 부류의 소설을 하나로 묶어 ‘사회소설’로 분류한 것은 Louis Cazamian이 최초라 할 수 있는데,⁸⁾ 그 이후로 Cazamian의 논의에 기초하여 이를 발전시키거나 그의 작품평가를 반박하는 비평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Felix Holt의 경우, 작품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상때문에 때로 이 부류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George Eliot의 작품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사건들을 다룬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더우기 바로 전 작품인 *Romola*가 영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배경을 지녔던 점을 고려하면 다시 영국의 현실에 뿌리박은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직접적인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의 진전임에 틀림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대의 비평에서도 George Eliot가 다시 영국의 현실을 그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또한 이 작품에서 한층 더 성숙한 작가 의식을 읽어내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막상 당대의 비평에서는 이 작품의 정치적 경향에 관하여 논의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인물의 세심한 묘사나 지적, 도덕적인 측면, 혹은 서민들의 활기찬 삶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⁹⁾ 이러한 논평들은 흔히 무시하기 쉬운 George Eliot의 유머나 평민들의 삶을 그려내는 생생한 필력, 그리고 *Romola*에 비하여 이 작품이 확연히 진전된 면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면에서 음미할 가치가 있으나, 왜 하필 이 소설이 선거법 개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를 둘러싼 각 인물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상세히 그려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만다.

‘정치소설’로서의 면모에 주목하는 평자들은 주로 당대 지식인들의 지적 풍토나 사상과 이 작품에 나타난 정치관을 연관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평자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W.F.T. Myers는 Comte, Spencer, Feuerbach의 사상과 이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사상적 입장이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주장하며,¹⁰⁾ Michael Wolff는 Matthew Arnold의 *Culture and Anarchy*와 Thomas Carlyle의 “Shooting Niagara: And After?”, 그리고 Felix Holt를 연결시켜 이들이 1860년대 후반에 격렬하게 진행된 선거법 개정운동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대한 증산층 지식인의 두려움을 드러내 준다고 말한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는 Treby Magna가 1830년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모했고, 선거라는 과정을 둘러싸고 어떠한 인물들이, 혹은 어떠한 정치적 세력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당대¹²⁾의 사정

6) *Mary Barton*, *Alton Locke*, *Sybil*, 그리고 *It is Never Too Late To Mend*, *Hard Times* 등을 포함시킨 일군의 작품들을 말한다.

7) F.R. Leavis, *Valuation in Criticism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P, 1986), 59.

8) Louis Cazamian, *Le Roman Social en Angleterre* (1903), published in Britain as *The Social Novel in England, 1830~1850* (London, 1973).

9) John Morley, from *Saturday Review*, 21 (16 Jun. 1866), 722-724, E.S. Dallas from *The Times*, (26 Jun. 1866), 6. in Gordon S. Haight ed., *A Century of George Eliot Criticism* (Boston: Houghton Mifflin, 1965), 32-38.

10) W.F.T. Myers, “Politics and Personality in *Felix Holt*,” *Renaissance and Modern Studies*, x, (1966), 5-33.

11) Michael Wolff, “The Use of Context: Aspects of the 1860’s,” *Victorian Studies*, Sep. 1965.

12) 여기서 ‘당대’는 이중의 규정을 받는다. 하나는 작품의 배경이 된 1차 선거법 개정 시기요, 또 하나는 작품이 쓰여진 시점, 즉 2차 선거법 개정 논의가 가열되던 시점이다. 작가는 이 두 시기

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전형적인가가 중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Treby Magna는 North Loamshire에 위치한 오래된 소읍으로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선거구가 된다. 커다란 정치적 사건들과는 무관한듯 보였던 Treby Magna는 선거법 개정을 전후하여 서서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운하나 Sproxton광산같은 산업화의 영향이 침투하면서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고 농가 재정이 궁핍해지는 측면과 더불어 이곳이 신흥 공업 도시가 아니라 농업과 수공업에 의존해 온 상업지역임으로 해서 생겨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¹³⁾ 이곳에는 전통적인 Tory이며 귀족 가문인 Debarry家와 상업으로富를 축적하여 귀족인 Transome家의 이름을 사들인 Durfey—작품속의 Transome—家 외에도 Peter Garstin 같은 자본가나 Tillot, Nuttwood 같은 상인 계층 그리고 소작인들과 광부 등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이 공존하며, 종교적으로도 국교도와 비국교도가 공존한다. 이러한 복잡성이 당대의 영국사회에서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인가는 다시 또 긴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지만, 작가의 말대로라면 산업화와 선거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생겨난 복잡한 상황자체가 바로 이 소설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들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128)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 점은 Tory, Whig, Radical이 통상 여겨지듯 보수-진보의 척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주 가문의 Harold가 급진주의를 표방하고 그의 외삼촌인 John Lingon이 그것을 긍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표방하는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ngon이 생각하기에 Harold가 Radical이 된 이유는 Tory의 시대가 이미 지나고 Whig는 말도 안되는 것만 하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며, Harold는 민중이 자기 몫을 찾겠다고 일어서기 전에 좋은 가문 출신의 누구인가가 나서서 그들을 지도하여 그나마 아직 유지되고 있는 기득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삼촌을 만족시킨다.(110-111) Harold는 영국에서의 계급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한편으로 전통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는 외교관으로 출발하여 Smyrna에서 은행가 겸 상인으로 성공한 후 결국 고향에서 지주로서 정착하려는 생각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모습은 토지소유 계급과 상업-산업 부르조아의 이해관계가 겹보기보다는 훨씬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영국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⁴⁾ 그러면서도 Harold는 기질적으로 새로운 계층, 즉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의 이기주의, 실리주의를 보여준다. Harold라는 인물은 영국 사회에서 Tory-Whig-Radical의 구분이 실은 전통에 대한 태도나 민중을 다루고 이용하는 방법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뿐 결국 자기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고 기득권의 수호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한 통속이라는 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성과라고 할 만

의 차이점을 엄밀히 의식하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후자가 전자와 동일한 패턴을 띤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13) George Eliot, *Felix Holt, the Radical* (Harmondsworth: Penguin, rpt. 1982), 124-128, 앞쪽의 본문 인용은 이 text에 의한 것이며, 괄호 안에 면수만 표시함.

14)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도 흔히 얘기하듯 지주 계층에 대한 부르조아의 승리라기보다는 변모한 상황에서 각 정파가 충돌없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타협의 산물이며, 실제로 1차 선거법 개정 이후 공개선거 등의 이유로 상황에 따라서는 지주의 입지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H.J. Hanham, *The Reformed Electoral System in Great Britain 1832~1914* (London: The Historical Association, 1968), 11-13.

하다.¹⁵⁾

그런데 이렇듯 Tory-Whig-Radical 등 현존하는 정치세력들을 동일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들로 간주하고 이와 대비하여 작가가 내세우는 인물이 Felix라는 데서 모든 비평가의 비난이 시작된다. 제목의 약속을 반박에 지키지 않았다는 Henry James의 평¹⁶⁾에서부터 Felix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실패라는 Leavis의 단정¹⁷⁾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평가도 소설 속의 인물로서의 Felix가 실패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가 다른 노동자들과 확연히 다르게 묘사된다는 점이 아니라—그가 노동자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민중의 교사로 자처하는 그가 가진 교사로서의 결함들이 오히려 작가에 의해서 미덕으로 치켜올려진다는 점이라고 Kettle은 말한다.¹⁸⁾ 즉, 그가 실제로는 작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현실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상주의자인데도 작가는 그를 이상주의자로서, 예외적인 존재로서 실감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묘사된 현실의 온갖 부정적인 양상과 대치되는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다. 작가는 그의 좌절과 수난이 그의 엄연한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현실 때문인 것으로 그려내는데, 이것은 작품 전체의 실감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George Eliot이 지닌 ‘탐닉’의 경향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평자들이 작가의 정치관과 Felix라는 인물의 정치관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러한 耽溺과 理想化 때문일 것이다.

급진주의자로서 Felix가 지닌 결함과 작가의 理想化 경향은 Felix라는 인물 형상화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Tory든 Whig든 Radical이든 저마다 자기 정파의 혹은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실제로 민중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여할 의도는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민중적 실감에 더 가까운 바 있지만, 막상 이 작품에 드러난 노동자(주로 광부들)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들은 무지하고 난폭하고 감정적이며 금품이나 향응에 쉽게 매수되기도 하며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리라 기대되는 Harold를 지지한다. 선거의 과정은 폭력과 무질서로 뒤범벅되어 있고 결국은 폭동으로 치달는다. 그런데 작가의 이러한 평가는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작가는 Harold의 급진주의와 Johnson의 선동, 그리고 실제 민중의 욕구 사이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결국 모든 정파와 후보들은 물론 노동계급 자체도 근원적인 문제는 망각한 채 목전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식의 진단은 1860년대 지식인들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

민중의 도덕적 성장만을 주장하고 실제적인 정치적 권리 획득은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일로 미루어 버리는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여러 평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다. 실제로 1830, 40년대의 Chartist 운동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혹은 물리적 힘과 정신적—도덕적 힘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도덕적 개혁을 주장하

15) Tory, Whig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법 개정이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의 혁명을 방지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2차 선거법 개정 때 John Bright같은 Radical은 선거권 확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Hanham, 3-4.

16) Henry James, from *Nation* 3 (16 Aug. 1866), 127-128. in Haight ed., 40.

17) Leavis, *Valuation*, 58, 61.

18) Arnold Kettle, *Literature and Liberation* (Manchester: Manchester UP, 1988), 191-192.

19) Matthew Arnold의 세 계층(Barbarian, Philistine, Populace)에 대한 진단이나 'ordinary self'/'best self'의 구분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구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더라도 항시 국회나 정치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²⁰⁾ 또 선거에서의 부패도 실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832년 이전부터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유독 작가가 노동자의 정치권력 요구를 문제시 하는 것은 중산층 지식인의 전형적인 불안을 보여준다는 것이 평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²¹⁾

그러나 그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그려진 현실이 모두 노동계급의 성장에 대한 지식인의 불안으로 채색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의 노동자들과 Felix가 정면으로 접촉하게 되는 후보 지명일의 연설장면(제30장)에서는 한 노동자의 연설과 Felix의 연설이 대비되어 제시되는데, 주로 차티스트 운동의 강령을 대변하는 이 노동자의 연설은 당대 그 계급의 각성된 성원이 지닐 수 있는 날카로운 현실 판단과 안목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매우 잘 짜여지고 비유와 반복이 적절히 구사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도리어 연설의 말미에 Harold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앞부분의 어조와 걸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반면에 Felix의 연설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그 어투에 있어서 대중 연설로서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머리 속에서 구성된 듯 어색하고 복잡한 문장구조와 일상 언어에서는 별로 쓰일 법하지 않는 딱딱한 훈계조의 어투는 그를 무엇인가 차원 높은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동원한 상투적인 묘사(‘빛나는 눈’ ‘우렁찬 목소리’ 등)와 결합하여 작가가 의식적으로 의도하였다고 짐작되는 효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²²⁾ 물론 작가의 공감이 Felix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은 흔들림없는 사실이지만, 작가는 그 공감을 독자에게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한 셈이고 도리어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민중의식의 발현을 실감나게 제시해준 셈이라 하겠다. 또 Debarry家の 하인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나 흔히 ‘코러스’로 비유되는 군소 인물의 탁월한 형상화는 그것이 작품의 중심 줄거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탁월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²³⁾

그런데 평민들의 생생한 삶을 증거로 작가의 민중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Felix의 정치적 견해를 들어 작가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입장이든, 이 작품을 정치 소설로 보는 입장에 서있는 평자들에 공통되는 것은 Transome家の 이야기를 작품의 기둥 줄거리에 제대로 통합이 안된 결과지로 간주하는 경향이다.²⁴⁾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소설’이라는 개념의 틀 속에 직접 간접으로 얽매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J.M. Blom은 이제 ‘사회문제 소설’이라는 개념의 죽음을 선언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소설을 읽고 그 줄거리와 관련된 당대의 자료들을 찾아 읽은 후 두가지를 비교하는 식의 연구풍토를 지양하고, 소설자체가 제기하

20) Kettle, 193.

21) Hanham, 17-18.

22) David Craig, "Fiction and the Rising Industrial Class," *Essays in Criticism*, xvii, 1967, 65-68.

23) 민중언어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탁월한 형상화에 대해서는 Henry James나 F.R. Leavis도 지적한 바 있다. Haight ed., 42; Leavis,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1948), 62.

24) Kettle은 이 부분을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소설이 급진주의에 관한 소설이나 Transome부인에 대한 소설이냐를 묻는다. Kettle, 188. 또 이 작품을 30년전 Midland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는 Henry James도 Transome 부분이 강력하긴 하지만 극적으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Haight ed., 41-42.

는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⁵⁾ 이러한 논지는 잘못 극단화되면 다시 현실과 절연된 ‘작품자체’라는 이데올로기에 휘말릴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소설’이라는 범주가 작품의 성과와 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필요한 비평적 사유를 회피하고 소위 ‘사회와의 연관성’ 자체를 적당히 강조하고 마는 구실로 사용된다면 아예 ‘정치소설’이니 ‘사회소설’이니 하는 개념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편이 나으리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3. 노동계급과 여성

여기서는 주로 여성론적 비평 가운데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문제와 여성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그러한 관점이 작품을 통일된 전체로 읽어내려는 노력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 글의 관심사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른 ‘여성해방의 관점’이란 실제로 작품의 올바른 이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바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소박한 상식과 연관해서도 기존의 여성론적 시각에서 본 *Felix Holt*論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문제’가 한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과 동떨어져 저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든가,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보다는 특정한 단계의 역사 속에서 특정 계급에 속한 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여성 전체의 문제를 푸는 데 더 유익할 뿐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제 여성해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상투적인 문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상식조차 서구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다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고, 더우기 이러한 관점을 실제의 작품읽기에 제대로 적용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elix Holt*에 관해서는 주로 계급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글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논자들 가운데 대표 주자 격인 Bonnie Zimmerman은 이 작품에 1860년대의 여성문제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개혁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와중에서 작가는 정치적 개혁보다는 도덕적 개혁에, 참정권의 획득보다는 의식의 각성에 강조점을 두며 후자가 결여된 전자는 결국 ‘해악을 끼치는 힘(power to do mischief)’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권에 대한 작가의 견해는 Felix가 노동자들을 향하여 주장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Zimmerman은 이 작품이 남성들의 정치세계나 가차없는 운명의 힘만이 아니라 그것과 ‘유추’하여 ‘여성의 진정한 힘(woman's true power)’이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말한다.²⁶⁾ 그러나 여성의 영향력과 노동계급의 도덕적 성장을 작품 속에서 실제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쉽지 않다. Zimmerman 자신도 ‘유추’라는 말로써 이러한 사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인데, 이 작품에서는 당대의 사정이 그러하였듯이 여성이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거의 배제되어 있고, 더우기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Zimmerman을 비롯한 평자들은 작품 내에서 여성문제와 정치의식의 연결점을 찾기보다는, 거의 예외없이 George Eliot의 편지 가운데서 여성의 선거권에 대하여 논평하고 ‘숭고한 복종(sublime resignation)’을 권장하는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그

25) J.M. Blom, "The English 'Social-Problem' Novel: Fruitful Concept or Critical Evasion?", *English Studies*, vol. 62, 1981, 124-127.

26) Zimmerman, 432-433.

편지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작품 속에 작가의 여성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²⁷⁾ 이는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과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유추 이상의 차원으로 비교할 근거가 작품 내에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응색한 사정의 반영이고, 노동계급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성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곧바로 연결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Zimmerman은 Mrs Transome과 Esther를 통하여 작가가 ‘해악을 끼치는 힘’과 ‘해악을 끼치는 힘이 결국 굴복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즉, 처음에 Esther가 보이는 우월감과 신분상승 욕구나 Mrs Transome이 보여주는 지배욕을 노동자들의 정치 권력욕과 같은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이러한 욕구들을 이기주의—이타주의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두고 Shuttleworth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가정의 화목이라는 빅토리아조의 비전은 사회적 질서의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능의 性的 차별화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관념이 신분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했던 것이다.

The Victorian vision of domestic harmony did not simply offer a powerful image of social order. The socially ingrained idea of the sexual differentiation of functions facilitated acceptance of the hierarchical social division of labour.²⁸⁾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작품이 George Eliot의 보수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준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Mrs Transome의 뛰어난 형상화가 그 보수성을 잠식하는 면을 보이는 정도에 그친다. 그렇지만 백보양보하여 Mrs Transome이 기존의 가부장제적 신분질서에 ‘도전’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삶이 결국 공허한 것으로 그려지는 한 작가가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견해들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기존 정치에 대한 노동계급의 도전과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도전을 구조적으로 동일시하고 ‘기존질서 對 피억압자의 도전’이라는 추상적인 정식으로 이 작품의 구조를 일반화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여성과 노동계급이라는 두 범주는 추상적인 차원의 유추로서만 동등할 뿐 실제 작품 내에서는 다른 양상을 띤다. Esther의 경우, 그녀가 보여주는 신분상승 욕구나 고급스러운 취미는 자신이 억압받고 있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의 산물이 아니라, 기존의 계급구조는 완전히 승인하면서 자신이 그 속에서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의 소산이다. 그녀가 Louisa Jermyn을 비웃는 이유는 그녀가 ‘발이 크고, 손수건에다가는 제일 구역질나는 향수를 뿌리며, 마치 대문자로 “최신 유행”이라고 쓴 것같은 모자를 쓰기’(153) 때문이다. Esther가 곧 이어 진정한 숙녀는 ‘어딘가 세련되고 우아하며 매력적이고 결코 주제넘게 나대지 않는’(153) 존재라고

27) Merryn Williams,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Macmillan, 1984), 138; Sally Shuttleworth, *George Eliot and Nineteenth Century Science: The Make-Believe of a Beginning* (Cambridge: Cambridge UP, 1984), 115-141; Rosemarie Bodenheimer, *The Politics of Story in Victorian Fiction* (Ithaca: Cornell UP, 1988), 103-107.

28) Shuttleworth, 129-130.

29) Shuttleworth, 115, 139, 141.

말할 때에도 독자로서는 이나저나 속 빈 강정이라는 마찬가지라는 Felix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다. 물론 Esther에게 그러한 속물근성과는 별개로 무시할 수 없는 매력과 미덕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Felix가 Esther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에서 연유하는 것도 사실이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Felix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이전의 Esther는 자신의 세련된 취향이나 기준과 주변의 상황이 화해될 수 없음을 불만스러워하는 상태에 함몰되어 있는 것(158)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녀가 결국 Transome Court의 삶을 거부하고(따라서 유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fine lady'의 삶을 포기하고) Felix의 힘든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동경하던 삶이 사실은 생명이 없고 공허한 것이라는 뼈아픈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당대의 지배계급의 삶에 대한 강한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각성이 가지는 내용은 외형상으로만 Felix의(그리고 여러 평자들의 주장대로라면 George Eliot의) 정치관과 흡사할 뿐, Felix의 주장이 지니는 비현실성이나 도덕주의, 정신주의적 색채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문제는 그녀의 각성과정은 Felix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작가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작가의 자기탐닉적 경향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한편 Mrs Transome의 경우에는 지배욕이나 강한 의지가 자신과 주변 인물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단죄받는 것은 아니다.³¹⁾ 오히려 그녀의 욕구는 그녀의 불행한 삶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녀가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때문에 더욱 파괴적인 것으로 된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도 그녀에게 지켜야 할 가문과 재산이 있고 지주로서의 권리가 있기에 더욱 강렬한 것이 되는데, Felix가 급진주의자가 되어 안온한 소시민의 삶을 저버리면서 Mrs Holt의 기대가 부서지는 과정이 다소 코믹하게 그려진 것과 비교해 보면 Mrs Transome의 지배욕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녀의 계급적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력의지보다는 복종을, 정치적 권리보다는 정신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작가의 입장이 여성의 문제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지배적인 계급질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정치의 영역과 여성의 삶을 다소간 단절시켜 그려낸 탓에 좁은 의미에서의 작가의 '정견'이 덜 개입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Zimmerman을 비롯한 여성론적 비평가들의 논의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여성의 삶이라는 두 차원을 설정하고 이를 동일하게 '지배욕-복종' 혹은 '권력-도덕'의 대립구도로 설명한다. 이로써 그들은 Esther나 Mrs Transome의 계급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성은 곧 피억압자라는 명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작품에 나타난 상이한 수준의 성과를 모두 작가의 정치관과 연결시켜 재단해버린다. 이는 작품을 읽는 우리의 실감과도 어긋난 설명일 뿐더러 '여성' 일반을 계급적 의미에서의 피억압자와 동일시하는 구미 여성론의 편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독서를 요구한다.

30) 전승희, 72-73.

31) F.R. Leavis, *The Great Tradition* 70-74. 이 점에 관하여 Arnold Kettle은 Transome 부분을 정치적인 것과 분리된 도덕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Leavis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Arnold Kettle, 188.

4. F.R. Leavis의 *Felix Holt*論

Leavis는 이 작품이 George Eliot의 작품 세계에서 분명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에 드러난 성과가 심한 기복을 보이는 것으로 전제하고 각 부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개진하고 있다. 그의 평가는 크게 보아 작가의 자기탐닉을 보여주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보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선 문제시 되는 부분은 Felix라는 인물의 실패와 그의 존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Esther의 작성이 지니는 의미일 것이다.

Esther의 작성이 한 남성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당시로 보아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예외적이었던 상황에서는 남성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선택한다는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Felix는 Esther의 작성을 실감나는 것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작성을 가능케 하는 Felix의 미덕이 얼마나 설득력있게 제시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Felix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Leavis의 단정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가 인물로서 실감나게 그려진 부분도 없지는 않다. 가령 Esther와 처음 대면하는 장면에서 그는 아주 어색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작가는 그녀의 취향이나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그녀가 지닌 어떤 매력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끌리는 Felix의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다. Felix는 Esther가 Lyon의 딸로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놀라면서 Lyon이 딸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Lyon이 딸을 그렇게 키운 것이 결혼을 잘못된 탓일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 날무우를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처자식 핑계를 대며 양심을 굽히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면서 바로 Esther야말로 남성을 그런 비굴한 운명으로 몰아 넣는 여자라고 단정짓는다. (151, 156)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Felix가 미묘한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Esther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 처음 Lyon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완벽하고 바람직한 인물로 제시된다고보다는 한사람의 이상주의적 급진주의자로 그려지는 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Lyon이 Felix에게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을 갖거나 그들을 경멸하지는 말라고 경고하는 말도 그 대화의 맥락에서는 실감나게 들린다. (147)

이렇게 본다면 Felix가 Esther에게 자신의 인생과, 여성관 등을 피력하는 부분(27장)은 두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이다. 왜냐하면 긴장과 은근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장면을 계기로 Esther 쪽에서 Felix의 영향력을 불완전하게나마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급진주의자로 살아가려는 Felix의 목표와 여성과의 관계는 비교적 단순명료하다. Felix가 새로운 종류의 선동가(a demagogue of a new sort, 366)로 살아가려 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자 Esther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한 삶이 매우 힘든 것이겠지만 정말 훌륭한 삶일거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글쎄요, 여자들이란 성녀 테레사나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아니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도 아니니 이런 종류의 일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할거요.”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없죠. 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의존적이거든요. 여자는 더 가까운 곳에 있고 더 보잘것 없는 그런 일을 택하기 마련이죠. 자기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보잘것 없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고생을 낙으로 알고 고생을 택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소?” 갑자기 눈에 궁금한 빛을 띠며 필릭스가 물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목과 이마까지 붉어지면서 말했다.

그들의 말에는 전적으로 두사람의 은밀한 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367)

‘Well—woman, unless they are Saint Theresa or Elizabeth Frys, generally think that this sort of thing madness, unless when they read of it in the Bible.’

‘A woman can hardly ever choose in that way; she is dependent on what happens to her. She must take nearer meaner things, because only meaner things are within her reach.’

‘Why, can you imagine yourself choosing hardship as the better lot?’ said Felix, looking at her with a sudden question in his eyes.

‘Yes, I can,’ she said, flushing over neck and brow.

Their words were charged with a meaning dependent entirely on the secret consciousness of each. (367)

여기서 여성의 운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변치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은 보다 훌륭한, 그러나 그만큼 더 고생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만이 극복된다. 바로 그 더 나은 삶은 Felix에 의해 제시되며 Esther에게 남은 문제는 그의 삶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인 것이다. 이 장면 전체에서는 Felix의 삶이 과연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논의로 되고 있으며 Esther가 느낀 경외심에 작가도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장면을 전환점으로 하여 작가는 Felix에 관한 일체의 비판적인 어조를 삼가한다. 또 이 장면 이후 두 남녀는 잠시 독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선거를 둘러싼 갖가지 복잡한 관계와 얽히고 설킨 법률적 문제가 정면에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일 폭동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리하여 Esther와 일정 정도 애정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선 이후의 Felix는 어렵지만 값진 삶을 대표하는 인물로만 그려지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작가는 Felix에 관한 한 Esther와 동일한 태도를 견지한다. 즉, Felix의 삶은 훌륭한 것이므로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거기에 얼마나 협조적이냐가 문제일 뿐, 여성인 Esther의 입장에서 창조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지니는 복잡한 문제는 일단 잊혀지게 되는 것이다.

Leavis는 Esther라는 인물이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인물이라기보다 다른 여성 인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흥미롭다고 하였는데,³²⁾ Esther는 자신이 Gwendolen인지 Dorothea인지 모른다는 Leavis의 말³³⁾을 뒤집어 보면 Esther가 어떤 면에서는 Dorothea와 Gwendolen를 미숙한 형태로나마 한꺼번에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여성 인물과 주변 남성들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작가가 특히 Felix에 대한 Esther의 태도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Will Ladislaw나 Daniel Deronda에 대

32) Leavis, *The Great Tradition*, 67.

33) Leavis, *Valuation* 62.

한 작가의 (그리고 여주인공의) 태도와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삶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넘어서는 어떤 이상적인 삶에 대한 열망과 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의 타락 때문에 혹은 자신의 관념성 때문에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삶에 대한 작가의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작가에게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인물들의 엄연한 한계가 오히려 그 인물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렇듯 작가의 열망을 투영한 인물들은 객관적인 형상화의 대상이 된다고보다는 작가의 대변자나 아니면 작가의 공감을 전적으로 차지하는 인물이 되어 작품의 다른 요소와 결맞지 않게 되어버린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자기탐닉(self-indulgence)의 경향이나 집착이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일 터이다. Leavis는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이러한 작가의 탐닉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Daniel은 '여성이 만든 것'³⁴⁾이라는 언급이나 빅토리아조 지식인이라는 점과 여성답다는 점이 George Eliot에게 있어서 그다지 상충하는 경향이 아니라는 지적이³⁵⁾ 그 예이다. 물론 Leavis의 입장이 George Eliot의 결정적인 한계를 작가의性と 일관되게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Henry James가 George Eliot를 두고 남성다운 포괄성이 부족하다든가 여성다운 작가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경우에 비한다면³⁶⁾ Leavis의 논지는 그저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막연히 연상되는 어떤 느낌을 작품에 덮어 씌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Henry James류의 단정을 경계하고 Leavis가 지적한 바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작가의 결함과 당대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앞의 인용문에서 Esther가 한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성에게는 남성에 비해서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커다랗고 훌륭한, 그러나 자기 능력에서는 훨씬 벗어나 있는 듯 보이는 이상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고 싶은 탐닉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견지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사실은 근대화의 과정이 인간의 삶을 '변변치 못한것(meaner things)'으로 가득 채우고도 그것이 곧 창조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에 절망하여 현실적으로 무기력하면서도 매우 이상적인 관념을 좇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라기 보다는 근대 사회의 어떤 비창조적인 면이 여성의 제한된 삶 속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Leavis는 작가가 자기 탐닉적 경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이전 작품에 비해 한걸음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으로서 Transome家の 이야기를 꼽는다. Leavis에 따르면 소위 'Transome part'에는 작가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여주인공이 없고 Mrs Transome이 자기 연민이나 탐닉의 기미가 없이 다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전한 객관성이 유지되고 그러면서도 가슴저린 공감이 느껴진다고 한다.³⁷⁾ 뒤이어 Leavis는 그녀의 비극이 도덕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면밀한 심리적 관찰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녀의 비극을 'Nemesis

34) Leavis, *The Great Tradition*, 100.

35) Leavis, *The Great Tradition*, 99.

36) Haight ed., 42.

37) Leavis, *The Great Tradition*, 71.

에 관한 연구'라고 규정한다. 그녀의 비극은 귀족적 자부심과 경제적 능력의 결합이 신분의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Mrs Transome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는 집착을 보임으로써 도리어 더욱 절망적인 상태에 몰리게 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Esther와 같은 결단을 내릴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이요,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이를 고수하려는 열망이 또한 그러한 결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얼핏 보기에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단절되어 있는듯 보이기도 하여 이 작품을 정치적인 부분과 소위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분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의 삶이 Felix의 경우보다 훨씬 더 현실에 밀착되어 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모든 혁명적인 사상을 불온시하면서도 무엇인가 죄를 짓는듯한 느낌을 갖는 데서 쾌감을 느끼곤 하는 그녀의 취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04-105) 그녀의 문학적 취향은 프랑스 혁명이나 낭만주의 문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녀는 그로부터 어떤 '선진적인 사상'이나 민주적인 이념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위와 그 지위를 보존하려는 계급적 본능에 의하여 낭만주의의 특정한 국면, 다시 말해서 은밀한 죄의식과 반항이나 도덕적인 선악 판단의 거부 같은 요소만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녀는 자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창 나이가 지난 연령층이기 때문에 19세기 前半의 극심한 사회변동 속에서 자기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진 채 여생을 보내는 특수한 처지의 산물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더우기 그녀의 교양이라는 것이 어차피 귀족의 걸치레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낙후된 느낌이 더욱 그녀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Mrs Transome이 Treby Magna의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들과 다소 단절되어 있는 탓으로 소위 '정치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성과의 불균등과 무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Treby Magna의 삶이 부분적으로는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면서도 특히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평가나 대안적 인물로 나오는 Felix에 대한 작가의 일방적인 호의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Mrs Transome의 경우 오히려 현실과 밀착된 인물의 형상화를 보여준다. 물론 정치적 사건과의 단절이 곧 Mrs Transome의 성공적인 형상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적인 사건을 보는 작가의 기본적인 입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에서는 그러한 사건과 단절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보이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Transome家에서 보여주는 성과가 다름아닌 영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관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관심이 어떤 정치적 사건의 전체 구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획기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을 한꺼번에 어떤 한 인물에게서 구현하려는 의도로 표현된 경우에는 Felix같은 설득력 없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만, 애초부터 그런 '홀륭한' 대안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보다 현실적인 형상화가 가능한 것이다. Mrs Transome의 환경이나 성격으로는 도저히 Felix같은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구원자가 나타날 상황도 아니기 때

문에——젊은 시절 그녀의 ‘구원자’는 Jermyn이었다!——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선택의 기로에 선 Fsther에게는 ‘홀륭하고 강렬하고 끔찍한 비전’ (366에서 Felix의 말, 592-593 참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비극이 생생한 것은 그녀에게 Felix같은 미심쩍은 해결이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탓에 어찌 되었든 그녀가 처한 현실에서부터 구원이든 절망이든 찾아내야 했던 덕분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Esther의 문제가 결국 Harold에 의지하느냐 Felix에 의지하느냐의 선택으로 귀착된 것과는 대조적인 성과인 것이다.

잔혹하지는 않으나 주변의 모든 것들에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Mrs Transome의 성격은 아들에 대한 집착과 그 집착에 비례하여 커지는 절망감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면을 Leavis는 모든 것을 자기 의지의 통제하에 두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³⁸⁾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비단 Mrs Transome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근대문명이 기술적—벤삼주의적 지향을 강화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것이 Leavis의 평소 논지임을 상기한다면, 그녀의 삶은 바로 근대사회의 지배적인 경향이 귀족주의와 계급 이기주의 그리고 끈질긴 모성이라는 너울을 쓰고 구현된 것이다. 그녀의 비극은 보편적인 모성의 비극이 아니라 바로 근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사회적 지배권과 개인적 만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한 귀족 여성의 삶에서 어떻게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

5. 맺 음 말

우리는 이제까지 *Felix Holt*에 대한 여러가지 비평의 경향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경향들이 이 작품의 어떤 면모에 주목하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검토 하였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은 우선 이 작품이 George의 성숙한 모습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첫 작품이라는 광범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평가는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작품이 구성의 특징상 여러 부분으로 분열된 인상을 주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분열을 평자들이 과장하여 정치/도덕의 이분법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정치소설’이라는 범주가 소재의 특이성을 지칭하는 것 이상으로는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따라서 Transome 부분도 구성상의 단절을 구실로 정치적인 현실과 분리된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이 부분의 미덕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설에 작가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일관되게 관철된다고 보는 입장 역시 이 작품의 성과가 부분에 따라 일정치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게 되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노동계급에 관한 작가의 입장을 유추해보는 일부 여성론의 입장이 이러한 결점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Leavis의 경우 각부분의 성과의 차이나 Transome부분의 미덕에 관해서는 타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왜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작품 내의 질적 불균등 현상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충분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작가가 서로 다른 현실,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속성과 상황에 따라 작가 자신의 형상화 원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탐구함으

38) Leavis, *The Great Tradition*, 71 등 참조.

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작가는 한 사람의 통일된 인격체이므로 작가 특유의 형상화 원리가 대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특정한 상황,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형상화 원칙의 미덕 혹은 한계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의미에서 *Felix Holt*야말로 George Eliot의 성숙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가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였을 때 나오는 분열된 양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는 작품이라고 하겠다.